

## 일반논문

배상미 | 여성의 시각으로 재현한 식민지 조선 사회의 시공간성: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 『탁류』를 중심으로

이상진 | 불안한 주체의 시선과 글쓰기

: 1930년대 남성작가의 아내표제소설 읽기

이덕화 | 『토지』 가족 서사의 확대, 능동적 공동체 만들기



# 여성의 시각으로 재현한 식민지 조선 사회의 시공간성: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 『탁류』를 중심으로

배상미\*

## 차례

1. 들어가며
2. 중산층 가정주부를 벗어나 자율성을 탐색하는 시공간 여정
3. 정조관념으로부터의 탈피와 미래를 예비하는 여성노동자 되기
4. 식민지 근대 도시의 시공간을 점유하며 여는 새로운 가능성
5.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채만식 소설 『탁류』와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 나타난 여성 노동자와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 안에서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위치의 재현이 함의하는 바를 논하였다. 두 소설에 재현된 여성인물의 시공간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총독부의 정책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행위자, 특히 젠더에 의해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여성행위자를 분석할 때 단일한 역할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들이 중층결정되어있음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피식민자이자 여성, 비혼, 노동계급이라는 여러 불리한 상황들이 그녀들의 상황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가능성의 담지자로 그녀들은 재현되는데, 이것은 식민지 조선 사회가 근대화의 역동적인 사회변화의 흐름 안에서 등장한 여성들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행위자로 호출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을 반영한다.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핵심어 : 시공간, 식민지 조선 도시, 중층결정, 젠더, 여성 행위자

##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채만식 소설에 나타난 여성들이 경성이라는 도시공간을 전유하면서 노동자 의식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룬 채만식 소설의 여성노동자들은 1930년대, 경성이라는 시공간의 맥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1930년대는 조선총독부의 경성대도시 발전계획에 따라 경성이 본격적으로 도시화의 진전을 이룬 시기이다. 공간구조의 변화 뿐 아니라 같은 공간 안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가 환경 건설과 사회 지출 안의 거대자본의 흐름이 흡수되는 과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상기할 때,<sup>1)</sup> 생산구조의 변화와 이와 맞물려 나타나는 사회관계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도시 시공간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다. 1930년을 분기점으로, 식민지 조선의 문학에서 여성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문학에 본격적으로 재현되는데,<sup>2)</sup> 이는 당시 사회 공간적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1930년대 채만식 소설에서 여성노동자가 재현된 맥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의 생산구조 변화 및 이로 인한 사회관계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채만식의 두 장편소설 『인형의 집을 나와서』와 『탁류』는 각각 1933년과 1938년에 발표되었다. 전자의 시기는 카프가 해소되기 전이고, 1931년의 카프 1차 검거사건으로 카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는 해도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표작이라 부를만한 작품이 아직 생산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1938년은 그 시대적 맥락이 상당히 다르다. 1935년 카프가 해소

1) David Harvey, *The Urbanization of Capital*, Oxford: Blackwell, 1985, p.14.

2) 이에 관한 연구로는 배상미, 「1930년대 여성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계급투쟁」, 『민족문학사연구』58,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283~312쪽.

된 이후 노동자 투쟁이나 계급의식을 논하는 문학은 문단에서 그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의 전쟁계획에 협조하는 작가들이 하나 둘 씩 나타나고 있던 시기였다. 상당히 다른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두 소설에는 모두 여성노동자들이 소설의 주동인물로 등장하고, 자본가와 남성지배를 주축으로 하는 가족제도에 비판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사회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한다. 각각의 소설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관계망은 상당히 다르지만, 노동자의 문학적 재현이 왕성한 시절에도, 이미 쇠락한 시절에도 여성노동자들이 소설 안에서 사회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눈여겨볼만 하며, 그녀들을 통해 드러나는 당시 식민지 조선의 사회상이 어떠했으며 이들이 사회변화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채만식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는 주로 200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인물이 주체적으로 삶을 경영하는 듯 보여도, 여전히 억압당하고 타자화되는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거나,<sup>3)</sup> 여성들이 근대 자본주의적 생산공간과 소비공간의 힘에 눌려 그녀들의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종속되어버린다는 논의<sup>4)</sup>와 같이 여성인물들이 ‘억압당하는’ 상황을 주로 논의하였다. 이 같은 연구경향 속에서 여성인물들이 소설에서 수행하는 사회비판적인 역할들과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가능성들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채만식의 소설이 1930년대 소설의 왕성한 여성 노동자 재현의 맥락 속에 존재한다는 점, 한국 소설에서 노동자 재현 양상의 분기점이 되는 카프해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전히 여성 노동자를 중요한 소설 재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인형의 집을 나와서』의 여성노동자는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 노라이

3) 심진경, 『채만식 문학과 여성: 『인형의 집을 나와서』와 『여인천하』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3(2), 한국근대문학회, 2002, 54~75쪽.

4) 이수라, 『근대적 공간과 여성 인물의 운명』, 『국어문학』 37, 국어문학회, 2002, 178~202쪽.

다. 그녀는 남편과의 갈등과정에서 그녀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중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실망을 느끼고 남편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온 후 경제력을 갖추어 자립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야학교사, 가정교사, 행사인, 카페 여급, 인쇄소 여공으로 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녀는 점차 젠더화된 가족구조가 사회구조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여성이자 노동자라는, 사회 안에서 그녀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들이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구성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탁류』의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노동자 계봉이는 언니 초봉이의 결혼 및 동거생활을 보면서 가족에서 여성의 지위와 사적 영역에서 강요되는 정절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하고, 여성의 삶이 정조에 의해 제약당하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인형의 집을 나와서』의 노라처럼, 그녀도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적이지 않은 삶을 위해서라면 경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정적으로 임노동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영역을 구축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채봉을 통해 학습한 성별권력관계는 그녀가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노동현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권력관계를 인식하는 과정에도 크게 기여한다.

채만식의 두 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은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여성’ 노동자이기도 하고, 중산층으로서의 생활도 경험한, 다양한 사회적 지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또한, 여성인물들 각각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귀속적, 성취 지위들이 역동적으로 상호 교차하는 양상은 다양한 정체성들이 중층결정<sup>5)</sup>되어 그녀들을 구성한다

5) 중층결정이라는 용어는 마르크스주의에서 대공장 생산직 남성노동자를 염두에 두고 구성되어온 그 동안의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계급개념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를 비롯하여 한 개인이 속한 여러 가지 공동체, 그리고 그 개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따라 결정되는(중층결정되는(overdetermined)) 계급개념을 제한한 발리바르에게서 빌려왔다. (Etienne Balibar, Trans. Chris Turner, "From Class Struggle to Classless Struggle?", Etienne Balibar&Immanuel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Verso, 1991, pp.153~184.)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두 소설의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군산 부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녀들이 노동하고 가족에 포섭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공간은 서울이다. 1930년대라는 시점에 여성들이 군산에서 서울로 이주한다는 것의 의미와, 당시 서울의 도시화 수준과 서울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열어놓은 노동기회를 연구하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이 시공간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

## 2. 중산층 가정주부를 벗어나 자율성을 탐색하는 시공간 여정

『인형의 집을 나와서』는 동양은행 지배인 현석준과의 결혼관계를 지속해서는 자율적으로 살기 어려우리라는 판단 하에 남편과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을 나온 노라가 여러 공간을 이동하면서 비혼여성으로서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과정이 서사의 중심을 이룬다. 노라의 첫 번째 공간이동은 남편 및 아이와 함께 살던 서울의 계동을 떠나 군산으로 향하면서 이루어진다. 계동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지배 양반들이 거주했었고,<sup>6)</sup> 식민지 시기에도 이들의 후예 및 사회적 명망가들이 모여 살았으며, 이들에 의해 갑신정변이나 2.8 독립선언, 3.1 운동 같은 중요한 사건들이 조직되는 등 기득권층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사회적 중요성을 가진 공간이었다.<sup>7)</sup> 노라의 남편 현석준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진 명망가 집안 출신은 아니지만 변

6)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구성과 공간인식」, 『서울학연구』26, 2006, 21~23쪽.

7) 20세기 초반 계동을 중심으로 발생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그곳에 거주한 주요 명망가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김정봉, 「긴박했던 북촌의 46시간... 역사책 한 권 쓰겠네: 북촌기행② 북촌 계동길(상)-역사의 보물단지, 현대사육 언저리」, 2014.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 김정봉, 「칠순 넘긴 북촌 최소아과, 절대 문 닫지 말아요: 북촌기행③ 북촌 계동길(하)-역사의 보물단지 중앙학교 언저리」, 2014.11.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4401&CMPT\\_CD=SEARCH](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4401&CMPT_CD=SEARCH))

호사에서 동양은행의 지배인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계동은 노라 부부의 계급적 지위를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망 역시 드러내는 공간이다.

식민지시기 계동에 거주했던 명망가들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무산자들을 중심으로 사회혁명을 주장했던 사회주의자들보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조선인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확보하면서 조선민족운동을 지속해나가는 방향을 추구하며 민족주의자를 자처하던 이들이었고, 그들은 교육 혹은 출판 사업을 하거나 명망가로서의 지위를 지키면서 부와 권력을 누렸었다.<sup>8)</sup> 현석준의 동네 주민들은 명망가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한 현석준에게 든든한 사회적 배경이 되었음은 물론이요, 그가 은행지배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현석준이 노라에게 격노한 이유 역시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의 사회적 지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계동 토박이가 아닌 현석준이 그의 거주지를 계동으로 선택한 것은 그가 계동에 사는 명망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지위에 올랐으며, 그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노라가 허위로 날조한 서류를 바탕으로 돈을 대출받은 사실을 안 후 그의 분노와도 관련이 있다.

한편 현은 구가의 편지를 꺼내어보고 그만 성이 나서 입에 담지 못할 것은 말로 욕을 하며, 노라로 인하여 입때까지 쌓아올린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여지없이 뒤떨어졌다고 저주를 하였다. 그는 남의 눈속임으로 노라와 한 집안에서 앞으로 동거를 하여나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형식으로뿐이요 또 어린아이들도 나쁜 감화를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일체 노라에게는 말기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다. (...) 일이 무사해진 줄을 안 현은 또다시 돌변하여

8) 3.1운동을 조직하고 실행했던 주동자들 중 계동에 거주했던 손병희, 송진우, 최남선, 최린, 한용운, 현상운 등이 있다. 대부분 민족주의 진영의 영향권 하에서 민족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방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을 인제는 용서하겠다고 맹세를 하였다.<sup>9)</sup>

현석준의 태도는 노라가 그의 병간호 비용을 대기 위해 죽은 아버지의 도장을 빌려 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자 격노했다가, 노라의 부정행위가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사라지자 이내 태도를 바꾼다. 숙고의 시간과 이성적 판단 없이 충동적으로 돌변하는 현석준의 모습은 그가 사려 깊지 않고, 노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듣기도 전에 편지의 내용을 먼저 믿어버릴 만큼 노라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부족함을 드러낸다. 현석준이 단 한 마디 말로 노라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모든 양육권과 아내로서의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근거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여지없이 뒤떨어졌”기 때문인데, 이는 그에게 사회적 평판과 인간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현석준이 직접 잘못된 일이 아니라도, 그는 가족들과 함께 계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다른 계동 주민들에게 그의 가족과 관련된 좋지 않은 소문은 사회적 평판과 직장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사랑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현석준에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이고, 아내인 자신은 현석준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식에 불과함을 깨달은 노라는 자율적인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남편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동을 뛰쳐나온다. 조선인 기득권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인 계동의 성격으로 인해 노라의 계동 ‘탈출’은 조선의 중산층 관계망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고, 그녀의 사회적 지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리라는 암시가 된다.

계동을 나온 노라는 친정이 있는 군산 부근으로 이동한다. 흥미롭게도, 총독부로부터 도보로 삼십 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살던 그녀가 느끼지 못했던 총독부의 조선인 통제정책들의 흔적을 오히려 총독부로부터 한참 떨어진 군산에서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중요한 원리로서 가깝게 체감한다.

9) 채만식, 『인형의 집을 나와서』, 『채만식 전집』1, 창작사, 1987, 11쪽.

“어머니, 치마 저고리가 그게 무어유? 노인이……”

어머니도 웃었다.

“이렇게 입어야 헌단다.”

“왜? 누가 그래?”

“순사청에서랑 멘역소서랑.”

노라는 서울서 신문에서 보던 색복 장려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 거렸다.<sup>10)</sup>

“하두 와서들 졸르길래 말뻑이로 이렇게 한벌 히여 입었지, 누가 이 송헌 것을 입구 당긴다더냐! 빌어먹을 놈들이 허다허다 못허닝개 옷 입는 것까지 참견을 허는구나……”

어머니는 노라의 하는 양을 보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였지만 실상은 대단한 불평객이다.

“옷뿐이나, 고무신을 못 신게 허는구나! 짚신을 삼어 신으라구…… 그러 니 못 삼어 신는 사람은 사 신을라니께 돈이 더 들지…… 저이는 양복이야 구두야 빼떡리고 대가리질허구 땡기면서……”<sup>11)</sup>

“어머니, 저게 무슨 소리요.”

“누가 안다냐. 그 미친 놈들 새벽이면 그러구 땡긴단다.”

하고 어머니는 웃는다.

“웬히 저러구 다녀?”

“엇들엇들 제조라던가 무어라던가 헌다구 활갯짓을 허구 빗자락(빗자루) 을 들구 나와서 질바닥 쓸구 그러지 멀.

노라는 비로소 조기회라는 것인 줄 알았다.

“시방 우리 꼬마둥이도 게 가서 안 오너만 식전이면 그 웬수것 때미 일을 시킬 수가 있어야지.”

---

10) 위의 책, 37쪽.

11) 위의 책, 38쪽.

“보내지 말지?”

“하루만 안 가봐라, 생베락이 내리지.”<sup>12)</sup>

위 인용문은 당시 일본이 조선의 농촌에서 펼친 농촌진흥운동과 더불어 조선인들의 생활양식을 통제하기 위해 펼친 대표적인 정책들인 고무신 통제<sup>13)</sup>, 색의 장려<sup>14)</sup>, 라디오제조장려<sup>15)</sup>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불만 어린 반응을 담아내어 총독부 정책에 비판적인 저자의 시각을 드러낸다. 흥미롭게도, 노라의 어머니는 이미 총독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으나, 노라는 풍문으로만 듣던 이 정책들을 낯설어한다. 이는 총독부의 생활통제정책의 대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모여

12) 위의 책, 39쪽.

13) 한국에서 고무공업은 고무신 생산을 중심으로 1920년대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으나, 1930년대 이후 생산과잉으로 인한 고무공업 불황에 접어든다. 이 시기 총독부는 표면적으로는 지나치게 늘어난 고무 산업 팽창을 통제할 목적으로 고무 생산과 판매 통제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일본기업인 미쓰비시가 고무생산 뿐 아니라 고무신 산업을 독점하도록 도왔다는 조선인들의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실제 조선인 고무공업회사 연합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주익중, 『식민지기(植民地期) 조선에서의 고무공업의 전개』, 『경제사학』22(1), 경제사학회, 1997, 83~120쪽)

14)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인들의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하는 백의에 경계의 시선을 보내던 총독부는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생활습관으로 백의를 지목했고, 1920년대부터 백의의 단점을 설파하고 색의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의생활 강습회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부녀자를 통해 실생활에 침투해 들어가는 정책의 유용성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희진, 『식민지 시기 생활개선 논의와 의생활강습회의 역할: 총독부 정책 시행과 기술 및 지식 보급 가능성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34, 국립민속박물관, 2014, 29~60쪽)

15) 일본에서 라디오 제조는 1920년대 세계적으로 라디오 제조 붐이 일던 시기, 일본에서 1928년 쇼와 천황 즉위일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처음 고안되었다. 이후 체력증진과 국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엄청난 홍보를 벌여 일본의 각 지역에서 일정한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참여하는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아간다. 1931년에는 조선에서도 일본의 라디오 제조가 상륙하여, 총독부에서는 사회지도층 조선인들을 필두로 하여 정책적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이 제조에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했다. 황의룡·손환, 『일제 강점기의 라디오제조 보급과 사회적 영향』, 『체육사학회지』14(3), 2009, 37~48쪽)

살고, 서로간의 유대가 강한 농촌지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의 거주지가 군산 부근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1930년대 초반 군산은 1920년대 조선의 미곡수출기지로서 무역업이 번성하던 시기를 지나, 일본의 미곡가 하락에 따른 일본 농민들의 반발로 인해 미곡수출기지로서의 명성을 잃어가고, 만주사변 이후 핵심 대륙침략기지로 선택받지 못해 점차 쇠퇴해가던 시기였다. 당시 군수산업기지로써의 모습을 갖춰가던 장항의 인근도시였던 군산은 그 군사적 중요성이 주목받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군사기지로서 선택받지는 못했다.<sup>16)</sup> 또한 쌀 수출산업으로 인해 일찍부터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였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유곽 역시 상당히 발전했었다.<sup>17)</sup> 군산은 식민지시기 전반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성격을 바꾸어 나갔기 때문에 노라 어머니가 거주하는 군산 외곽지역이 총독부의 정책 변화에 맞게 주민들이 훈육되어가는 과정이 묘사되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 그녀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지역이 자동차가 다닐 만큼 어느 정도 도시화가 이루어졌었으나,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그 지역 안의 농촌진흥회의 역할도 총독부의 정책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쉽게 침투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군산은 노라가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을 실제로 체감하고, 이에 비판적인 의식을 키워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성별화된 가족제도의 모순을 체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논리적으로 비판할 힘을 얻고, 이 제도를 활용한 자본주의 사회질서를 깨달아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계동에서 그녀의 생활은 남편과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중심이었다면,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가는 그녀의 거주 공간을 비롯하여 그녀가 자원 봉사하는 야학당 역시 모두 여성들로만 이

16) 이성호, 『식민지 근대도시의 형성과 공간 분화- 군산시의 사례』, 『쌀·삶·문명연구』1, 쌀삶문명연구소, 2008, 195~197쪽.

17) 이정옥,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과 전통 사회의 변화- 유곽형성과 군산지역 유곽문화의 정착』, 『일본연구』24,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2015, 375~385쪽.

루어진 공간이다. 부부중심의 핵가족 안에서 생활하던 노라가 야학당에서 현재 조선 여성들의 실태를 목격하고 그것의 장단점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조혼, 집안의 의사에 따른 결혼, 당연시되는 남편의 외도를 야학당의 수업시간에 공공연하게 비판하다가 세 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을 잃어버린다. 이 같은 결과는, 계동을 떠나면서 남편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부관계에 진력을 느낀 이후, 구체적으로 현재 조선의 ‘일반적인’ 부부관계를 비판할 정도로 성별권력관계와 불평등한 가족제도를 바라보는 그녀의 심화된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조선의 일반적인 여성들에게 아직은 통용되기에는 이르다는 것 또한 보여준다. 이 시기의 노라는 자본주의가 성별권력관계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한 상태지만, 유년시절 친구이자 사회주의 운동가 병택으로부터 인쇄공으로 일하던 시절 여성 노동자의 성별화된 착취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운 베벨의 『부인론』을 건네받기도 한다.

일제의 전시정책이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동시에 여성들 간의 연대가 이뤄지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및 성별화된 착취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군산이 재현된 배경에는 군산이 총독부의 식민지 정책 진행과 함께 맞물려 흥망을 함께한 대표적인 도시였다는 시대적 배경도 한 몫 했을 것이다. 통치자와 피치자, 지도자와 동원되는 자의 구분을 체감할 수밖에 없었던 군산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권력관계의 작동은 목도하기 용이한 공간이고, 이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권력관계로 유비될 수 있다. 도시의 구획과 기능, 그리고 발달과정이 모두 총독부의 정책변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특히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의 거주지가 거의 완전히 분리되어있었던 서울과는 달리,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의 거주지가 혼합되어 있었고, 상당한 재력을 갖춘 조선인의 경우 지역정치에 참여할 권리도 주어졌서,<sup>18)</sup> 일본인과 조선인이 단순히 수직적인 위계관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군산이라는 공간은 그녀가 권력관계를 고민할 기회를

18) 이성호, 앞의 글, 191~194쪽.

제공했을 것이다.

계동을 떠난 것을 계기로 남편으로부터 정신적, 물질적으로 독립한 노라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력이었는데, 그녀는 군산에서 마땅한 임노동거리를 찾지 못해 다시 서울로 이동한다. 현석준이 재혼하고, 이에 따라 아이들이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낯선 곳으로 보내질 상황에 처하자 노라가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려는 목적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임노동 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시기는, 그녀가 돈화문 근처의 하숙으로 거처를 옮기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총독부가 19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기획한 경성시구개수사업을 벌이던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돈화문은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창덕궁·창경궁과 종묘 사이를 가로지르는, 지금은 을곡로라 불리는 제6호선 도로 부설을 두고 논란이 되었던 지역이다. 서울의 동서를 가로질러 순환하는 도로망을 부설하기 위해서는 창덕궁·창경궁과 종묘 사이를 관통해야만 했고,<sup>19)</sup> 이 같은 총독부의 도시부설계획을 알게 된 순중 및 왕실관계자들은 이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었다.<sup>20)</sup> 그러나 조선의 언론들은 도로부설문제를 왕실의 존엄유지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세금과 교통 접근성 향상 및 공용공간의 확장을 중심으로 보도하였다.<sup>21)</sup> 제6호선을 둘러싼 논란들은 전근대적 질서의 상징과도 같던 왕실의 권위와 식민지배질서의 충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중매체들의 반응이 맞물려 조선의 근대화 진행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근대화를 기치로 내세운 식민 질서 안에서 전근대적 질서가 쇠락하고 근대적 실용주의적 관점이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돈화문 일대에서 노동과 사회에 대한 노라의 인식 역시 변화한다. 노라는 돈화문에 이사 오기 이전에는 야학교사, 가정교사와 같이 중등교육 학력을 활용한 직

19) 엽복규, 「식민지권력의 도시 개발과 전통적 상징공간의 훼손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 및 의미-경성시구개수 제6호선의 사례분석」, 『동방학지』15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307~308쪽.

20) 위의 글, 308~315쪽.

21) 위의 글, 329~333쪽.

중에 종사하였지만, 이사 온 이후부터는 행상인, 카페 여급, 인쇄소 직공 같이 그녀의 학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조선에서 여성들에게도 근대적 교육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여성 고학력자들은 계속 늘어났지만, 그녀들이 종사할만한 마땅한 일자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sup>22)</sup> 따라서 여성 임노동자들이 그녀들의 학력과 관계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노라의 경우도 그 중 하나였다.<sup>23)</sup> 노라가 그녀의 직종 선택을 책망하는 친구 혜경에게 “그런데 내게 돈을 벌 재주가 무엇이 있수? 화장품 장사를 해보았지만 그걸 가지고는 밥벌이가 아니 되구, 그러니 할 수 없이 딴 도리를 차려야지.”<sup>24)</sup>라는 대답과 이후 노라가 일했던 공간들을 상기해보면 당시 고학력 여성을 위한 임노동 자리가 적었으며, 여성들에게 주로 열려있는 일터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공장 생산직 업종 혹은 서비스 업종이거나 성산업 업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처한 물질적 조건에 의해 과거 변호사이자 동양은행 지배인의 아내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벗어나 카페 여급으로 일해야만 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빠르게 받아들인다.

노라는 공장에 취직하기 전까지 카페 여급으로 노동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홀로 노동해야만 했다. 카페 여급으로 일할 당시에는 동료들이 있었지만, 카페 여급의 특성상 고정된 월급이 없고 손님들의 팁과 개인적으로 사귄 애인들로부터 받는 용돈 등이 수입의 전부이므로, 고용관계가 명

22) 여학생의 증가와 이에 따른 여성 공무 전문직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자료를 참고해보면, 여학생의 수는 1927년에서 1942년 사이 여학생의 수는 다섯 배로 늘었으나, 여성공무전문직의 수는 1927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남학생의 수와 남성공무전문직의 수는 갈수록 거의 근사해져, 1937년에 이르면 일치하는 수준에까지 다다른다. (전희진, 『식민지 초기 신여성의 공적영역으로서의 초대와 그 실재』, 『사회와 역사』 88, 한국사회사학회, 2010, 249쪽 참고)

23)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조선으로 돌아온 뒤, 그녀의 지식을 활용할 길을 찾지 못하고 시장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미역과 콩나물을 팔았던 최영숙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희진, 『식민지시기 문학의 장에서의 여성 작가들』, 『사회와 역사』 93, 한국사회사학회, 2012, 6쪽)

24) 채만식, 앞의 책, 243쪽.

확하지 않았다. 특히 노라 역시 카페 여급을 향한 사회의 낙인을 내면화하고 있어서<sup>25)</sup>, 여급들이 손에 쥐는 돈도 역시 노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노동시간과 쉬는 시간의 분리가 명확하고, 노동에 필요한 행동들이 규격화되어있는 공장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노동은 신성타더니 그 말이 옳은 것 같애…… 내가 즉접 노동다운 노동을 해보니까, 응…… 그러구 사람들이 모다 기운차구 씩씩해 보이잖어? 이층 기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허는 일이 씩씩해 보이는데”<sup>26)</sup>

노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사, 외관원, 카페여급은 모두 감정노동이 업무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였다. 노동과정에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이들의 업무는 그녀의 임금이 노동력에 대한 교환대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노라는 공장에서 일상생활과는 전혀 다른 공정을 거쳐 상품생산 과정의 일부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노동한다'는 감정을 느낀다. 그러나 그녀는 이 과정에서 노동력이 착취당한다는 것보다 비윤리적이라는 낙인이 찍힌 카페 여급으로부터 벗어나 '노동의 대가'로 생활하는 한 명의 '노동자'로 대우 받게 되었다는 기쁨이 앞서 노동관계 안에 자리하는 착취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녀 주변상황의 도움으로 점차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관계와 노동현장 안의 성별격차를 논리적으로 인식해가고, 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그녀를 공장에 소개해준 남수와 병택이가 주고간 베벨의 『부인론』은 그녀가 '여성' '노동자'로서의 자의식을 구성해나가도록 돕는다.

25) “벌써 여급질을 해먹었으니 처음 생각하던 것과는 판판으로 인제는 아무리 마음 이 결백하여도 타락된 계집이란 낙인이 찍히지 아니하였느냐!”(위의 책, 245쪽)와 같은 구절에서 보이듯이, 노라 역시 여급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내면화하고 있다.

26) 위의 책, 293쪽.



“흥…… 그새 인쇄소가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느니 어쩌느니 해두 중역이나 그런 사람들은 저이가 찾아먹을 것은 다 찾아먹구 우리 월급만 아니 주었다우. 그래두 그게 정당하우?” (…)

“그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월급이 그게 또 정당헌 월급이 아니라 우…… 자기네는 돈만 내놓구 가만히 앉아서 이익만 남겨먹지…… 그런데 그 이익은 우리 노동자가 일을 해주니까 생기는 거라우……” (…)

잡자리를 차리고 누웠던 노라는 문득 짐을 뒤지어 올봄에 병택이가 가져다 준 베벨의 <부인론>을 찾아내었다. 그때 보려다가 어려워져 못 보고 내던져 둔 채 지금껏 손도 대지 아니하고 짐 속에서 굴러다닌 것이다.

노라는 서문을 위선 펴가지고 어려운 대로 애써애써 읽어내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몇 줄째에서 눈이 번쩍 뜨이게 머리로 들어오는 한 구절을 발견하였다.

노라에게 있어서 크나큰 소득이었다.<sup>27)</sup>

인쇄소 경영난을 핑계로 세 달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공장 경영자에 대항한 동맹파업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남수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권력관계를 인지하고 있고,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자본가들이 가로채는 착취가 노동과정에서 자행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 노라는 남수의 설명을 듣고 병택이 그녀에게 주고 간 『부인론』을 다시 떠올리고, 그것을 정독한다. 노라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없지만,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검거된 병택의 이력으로 보아 그 책이 막연히 노동자 중심의 생산관계를 설명하는 안내서가 되리라고 짐작했을 것이다. 노라는 이 책의 초반부의 한 구절에 매료되는데, 소설 안에서는 어떤 구절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노라가 야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근대적인 부덕(婦德)을 비판하는 강의를 할 때 결혼한 여자는 남편 가족들의 종이자 남편의 종이 된다고 언급했었던 것을 상기해보

---

27) 위의 책, 294~295쪽.

면<sup>28)</sup>, 아마 그녀가 베벨의 책에서 공감했던 부분은 『부인론』 초반부에 등장하는, 여성과 노동자는 관습적인 생각에 의해 자유가 억제되어 둘은 지위상의 유사점을 가지고, 특히 여성은 노동자보다도 먼저 등장하여 처음으로 노예로 취급받은 존재라는 구절이었을 것이다.<sup>29)</sup> 노라도 이 구절을 통해 가정에서의 성별불평등이 전체 사회의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성을 인지하고, 노동자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 사회의 열등한 기표로서의 사회적 조건이 중층결정된 상황을 자각한다.

### 3. 정조관념으로부터의 탈피와 미래를 예비하는 여성노동자 되기

『탁류』는 근대교육을 받은 초봉이 선부른 결혼의 결과로 여러 남성들과 유사 부부관계를 맺은 후 결국 유사 남편을 살해하는 서사가 소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초봉의 여동생으로서 그녀의 비극을 지켜보고 그것의 원인이 가족과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한 역할과 지위가 초봉의 비극을 만들어내었다고 자각한 백화점 점원 계봉에 주목해보면, 『탁류』에 재현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읽어낼 수 있다.

『탁류』의 서사는 총독부의 미곡운반정책의 결과 부설된 군산선과 호남선이 연결하는 공간이 배경이다. 군산과 같이 철도가 연결하는 주요 도시 역시 총독부의 정책이 그 흥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사회현실의 변화와 관계없이 채봉이의 남성관계 변화와 맞물려 전개되는 것 같아

28) 위의 책, 59쪽.

29)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풍습과 교육과 제한된 자유로 인해 방해를 받아, 노동자처럼 나아가지 못했다.”, “부인과 노동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열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인은 다만 한 가지 일에 있어서 노동자에 앞서있어서, 여성은 노예의 역할에 복무했던 최초의 인간이었다.”(아우구스트·베를, 加藤一夫 譯, 『世界大思想全集 33: 婦人論』, 春秋社, 1927, 10-11쪽. 번역은 필자. 해당 판본은 채만식이 이 책을 창작했을 당시 조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부인론』 판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염두에 두고 채만식이 이 부분을 창작했으리라고 추측하였다)

보이는 서사의 흐름은 실상 총독부의 조선 식민지 정책 변화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조선의 유명한 산맥들에서부터 발원하여 하구인 군산에 도달하기까지의 금강의 여정을 묘사하면서 시작하는 소설의 첫 부분은, 시공간의 변화와 서사의 흐름의 긴밀한 연관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렇게 에두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탁류째 얼러 좌르르 쏟아져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치 하나가 올라앉았다.<sup>30)</sup>

저자는 금강이 군산에서 황해와 만나는 부분을 강물이 바닷물과 만나면서 대승적 합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의 흐름이 가지고 있던 꿈이 깨어지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는 이 소설에서 군산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예비한다. 1899년 개항 이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일본과의 주요 무역항이자 미국 수출항으로서 상당한 경제적 호황을 누렸던 과거 군산의 지위와는 다르게,<sup>31)</sup> 군수산업의 요충지로서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쌀 수출도 일본 본국에서의 반발로 인해 쇠락해버린, 마치 채만식이 묘사한 금강 하구와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일본 총독부의 정책 변화는 식민지시기 군산의 흥망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탁류』에서 재현된 군산에 거주하는 인물들은 모두 쇠락해버린 군산 도시의 모습처럼 희망을 잃고 무기력하고 부패한 모습이다. 한학과 근대 학문의 수혜를 모두 받았으나 엄청난 출세는 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군서기로 일하다가 군산으로 이주하여 회사생활, 나이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지자 미두꾼에서 하바꾼으로 전락해버린 정 주사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서울에서는 촉망받는 은행원이었다가 군산에 와서 유흥으로 엄청난 빚을 지고 은행의 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다가 그 남편에게 맞아죽는 고태수가 또 다른 사례이며, 초봉의 불행

30) 채만식, 『탁류』, 『채만식전집』2, 창작사, 1987, 8쪽.

31) 이성호, 앞의 글, 185~194쪽.

역시 군산에서 고태수와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쇠락해가는 도시로서 군산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총독부가 설치한 철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진행되는 『탁류』의 서사는 채봉이가 서울로 가는 길에 과거 그녀가 일했던 약국 사장 제호를 이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계기를 제공한다. 태수가 사망한 이후 군산에 진력을 느낀 채봉이는 이전에 그녀의 고용주였던 제호가 서울에 제약회사를 세울 예정이니 같이 일하자고 했던 제안을 기억해내고 무작정 서울로 향하다가, 군산선에서 내려 이리에서 대전으로 가는 호남선 열차를 기다리던 도중, 제호를 다시 만난다. 유부남이지만 초봉이에게 연정을 느끼던 제호는 대전에서 열차가 멈추자, 초봉이를 유성온천으로 데려가고 그의 첩으로 삼는다. 유성온천은 1907년 스키 마츠요시에 의해 처음 관광자원으로서 개발이 시작된 이후<sup>32)</sup>,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가는 철도의 요지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였다.<sup>33)</sup> 유성온천 역시 다른 온천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식 식사와 숙박, 그리고 온천욕을 겸한 곳이었는 데, 『탁류』에서 재현된 온천 역시 목욕을 위해 “유까다”<sup>34)</sup>를 입고 들어가는 일본식이다. 초봉의 고난이 시작되는 장소가 총독부와 일본 자본의 공모에 의해 만들어진 유성온천이라는 점은 저자가 식민지배와 초봉의 고난 사이에 일종의 유비관계를 만들어놓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서울은 군산의 쇠락하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현된다. 초봉을 비롯하여 계봉과 승재 등 『탁류』에 등장하는 주동인물의 주변 인물들은 모두 새로운 삶을 기획하

32) 유성온천의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라.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_id=CP\\_THE004&cp\\_code=cp1006&index\\_id=cp10060016&content\\_id=cp100600160001&search\\_left\\_menu=3](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_id=CP_THE004&cp_code=cp1006&index_id=cp10060016&content_id=cp100600160001&search_left_menu=3))

33) 편리한 교통은 온천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식민지시기 조선의 대표적인 온천이었던 부상의 주을온천 역시 교통의 발전이 온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김승, 『일제강점기 해방도시 부산의 온천개발과 지역사회의 동향』, 『지방사와 지방문화』14(1), 역사문화학회, 2011, 203~261쪽 참고)

34) 채만식, 앞의 책, 356쪽.

려는 목적을 가지고 서울로 이주하고, 특히 학업을 위해 서울로 이주했지만 학비를 벌기 위해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는 계봉의 경우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인다.

가령, 그새까지는 그다지 다니고 싶어 자발을 하던 기술 방면의 전문학교를, 의학전문이고 약학전문이고 맘대로 다닐 기회를 만났으면서도, 또 그 목적으로다가 서울로 올라왔으면서도 그것을 아낌없이 밀어내던지고서 백화점의 월급 삼십 원짜리 숄걸로 나선 것만 하더라도, 그 지경이 된 형을 뜯어 먹고, 그때위 인간 형보에게 빌붙어서 공부를 하는 게 창피했기 때문이다.<sup>35)</sup>

계봉이는 결단코 지레 결혼으로 도피도 하지 않고, 다만 혼자서 젊은 기쁨을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고, 그것을 변하려고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의 한 방편으로서 직업을 실하게 갖자니까 기술이 그림던 것이다. (...)

“어느 의학전문이나 또오, 약학전문이나 들어갈 시험 준비 하라구.”

계봉이는 좋아서 금세 입이 벌어지다가 말고 한참 승재를 바라보더니

“싫다누!” (...)

“공부시켜주는 의리가 연애나 결혼을 간섭할 테니깐…….”<sup>36)</sup>

계봉이 전문학교를 다닐 기회를 제공해주겠다는 형보와 승재의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스스로 학비를 모으는 이유는 재화를 제공받을 경우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언니 채봉이 동거하는 남성들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그들이 제공하는 물질적 재화를 바라고 그들과 유사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면 자신의 포부를 자유롭게 펼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다. 특히, 채봉이가 ‘아내’라는 지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35) 위의 책, 393~394쪽.

36) 위의 책, 422~423쪽.

물질적 요인, 즉 경제력이기 때문에 계봉은 안정적인 임금의 필요성을 무엇보다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당시 많은 지식인 여성들은 여성의 경제력,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의 중요성을 상당히 실감하고 있었다.<sup>37)</sup>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서의 노라 강연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공감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라는 ‘상식’은 남성들 뿐 아니라 여성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지식인 여성들이 결혼관계에서 남편의 조력 없이도 자유로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직업으로 전문직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의사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을 것이다.<sup>38)</sup> 『탁류』보다 몇 년 이른 1935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김말봉의 『밀림』에서 정조관념과 전통적인 아내의 역할에 얽매어 자신의 자율성을 상실했던 상류층 여성이 남편과의 결별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의사가 되어 돌아와 새로운 자기를 찾는다는 서사가 있을 정도로 의사라는 직업은 여성의 자립을 가능하게 할 만한 물질적 토대를 의미했다.

계봉은 초봉을 보면서 경제력의 필요뿐만 아니라 정조의 해악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승재는 전에도 시방도 그리고 앞으로도 초봉이에게 대한 동정은 잃지 않을 생각이다. 그러나 이미 못 남자의 손에 치어, 정조적으로 순결성을 잃어

37) 1930년대 당시 중등교육을 받은 여학생들의 65%는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공적 영역에서 일자리를 얻고자 희망하였으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과 이로 인한 여성의 비좁은 사회활동 범위에 의해 고작 34%의 여성들에게만 취직이나 진학의 기회가 주어졌다. (전희진, 『식민지 초기 신여성의 공적영역으로서의 초대와 그 실재』, 『사회와 역사』88, 한국사회사학회, 2010, 250~251쪽)

38) 한국에서 여성 의사 양성은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로제타 홀에 의해 1910년대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여성에게 의학수업 수강을 허용하고 금지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로제타 홀은 조선여자의사강습소를 세워 안정적인 여성 의사수급에 기여하였으며,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 의사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성은, 『로제타 홀의 조선여의사 양성』, 『한국기독교와 역사』2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5~43쪽; 김상덕, 『女子醫學講習所』, 『醫史學』2(1), 대한의사학학회, 1993, 80~84쪽 참고.

버린 여자, 초봉이를 갖다가 결혼의 상대로 삼을 의사는 꿈에도 없을 소리다.<sup>39)</sup>

초봉이는 집에서도 늘 이러한 꿈 아닌 꿈을 먹고 산다. 송희를 사이에 두고 승재와 즐기는 단란한 가정. (...)

일찍이 초봉이는 제호와 살 적만 해도 승재에게 대한 여망을 통히 버리진 않았었다. 흠집난 몸이거나 하면 민망은 했어도 그래도 승재가 거두어 주기를 은연중 바랐고, 인제 어찌면 그게 오려니 싶어 저도 모르게 기다렸고, 하던 것이 필경 형보한테 덜치어 심신이 다같이 시들어버린 후로야 그런 생심을 할 기력을 잃는 동시에, 일변 승재는 저를 다 잊고 이 세상 사람으로 치지도 않겠거니 하여 아주 단념을 했었다. 그리고서 임의로운 그 꿈을 가졌다.<sup>40)</sup>

초봉과 승재는 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 초봉의 성관계 경험을 꼽는다. 성관계를 했다, 즉 정조를 ‘잃어버렸다’는 판단은 여성들이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지 못하도록 막고 여성들에게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바깥을 상상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실상 ‘정조’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여성의 성관계 유무가 특정 사람의 품성과 자질을 전부 결정해버린다는 사회적 통념은 여성의 활동범위를 축소하는 족쇄이다. 당시 식민지 조선사회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여성이 성관계를 했다면 그 상대 남성과 결혼을 하지 않는 한 승재나 초봉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조적으로 순결성을 잃어버린 여자”, “흠집난 몸”이라는 낙인과 함께 살아가야만 했다. 제호, 형보 모두에게서 불만족하면서도 그들의 곁을 떠날 경우 정조를 ‘잃어버린’ 여성에 대한 낙인과 물질적 재화를 모두 잃을 두려움에 떠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탄식과 한숨, 그리고 승재와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초봉을 옆에서 지켜본 계봉은 모호한 ‘정조’

39) 채만식, 앞의 책, 426쪽.

40) 위의 책, 449쪽.

가 여성의 삶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모순을 문제삼으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즉 정조는 생리의 한 수단이지 결단코 생명의 주재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정조의 순결성이란 건 상대적인 것이어서, 한 여자가, 가령 열 번을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그 열 번이 번번이 다 ‘정조적’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설사 어떠한 여자가 생활의 과정상 불가항력이나 또는 본의가 아닌 기회에 정조를 온전히 하지 못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생의 실권’을 선고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이었다.<sup>41)</sup>

계몽은 ‘정조’를 상대방에 대한 신의로 변형하여 성관계 여부만 중시하는 단순하고 성기중심적인 정조관을 벗어난다.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을 단 한 번의 성관계를 통해 결정해버리는 정조관의 부당함 역시 인식하여 채봉이 빠진 상황의 모순을 직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계몽이 여성의 직업관에 대해서도, 정조관념에 대해서도 상당히 선진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서울이라는 공간성도 한몫 했다. 계몽이 거주하는 초봉의 집은 종로 동관 파주개, 지금의 종로 2가 부근이다. 또한 계몽이가 “종로네거리”<sup>42)</sup>에 있는 백화점에서 근무한다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당시 조선인이 경영하던 것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화신백화점의 점원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930년대 종로는 서구식 복장을 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나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활보하고 다니던 거리였으나, 사회는 그녀들을 “공적 공간 속에서의 위치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자율성이 결핍된 존재”<sup>43)</sup>로 바라보았다. 도시를 거니는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41) 위의 책, 388~389쪽.

42) 위의 책, 450쪽.

43) 서지영, 「산책, 응시, 젠더: 1920~30년대 ‘여성 산책자’(flânerie)의 존재 방식」, 『한국근대문학연구』21, 한국근대문학회, 2010, 219-259, 227쪽.



시선은 여성들을 도시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남성 중심적인 시선의 반영이며, 도시의 여성들을 남성들의 구미에 맞게 훈육하려는 기획의 일환이었다. ‘정조’에 문체의식을 가질 만큼 남성중심적 사회 분위기에 민감한 계봉은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그녀 나름대로의 도시여성상을 만들고자 했다. 계봉은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면서도 사람들이 ‘백화점 점원’에 대해 가지는 선입견과는 다르게 자신을 정체화하고자 한다.

“땅 진 날 밖엘 나오지 않느냐? 자동차가 옆으로 지나가질 않았느냐? 흙탕물을 끼얹질 않았느냐? 옷에 흙탕물이 묻었겠다? …… 그와 마찬가지로 허름 허름, 여드름 바가지나 변호사나리나 하꾸라이 귀공자나 그 축들이 어찌구 어찌구 해서 내가 제군들한테 연애편지 증상을 받는 것두 즉 말하자면 그런 피해란 말야, 응? …… 나는 아무 상관두 없는데 자동차가 흙탕물을 끼얹고 달아나는 ‘처벌할 수 없는’ 깽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깐 제군들두 조심 을 해! 잘못하면 약간 흙탕물이 아니라, 바루 바퀴에 치어서 죽거나 병신이 되거나 하기 쉬우니깐…… 알아들어? 아는 사람 손 들었!” (…)

“나? 난 본시 행동파시다. 행동파(行動派)……”<sup>44)</sup>

“일러루 줘 오세요?”

계봉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천연덕스런 얼굴로 손을 까분다. 여드름바가지는 비실비실 진열장 앞으로 가까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선다.

“이 편지 우체통에다가 넣어디리까요?”

계봉이는 뒤로 감추어가지고 있던 편지를 내밀어 보인다. 앞뒤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것을 계봉이도 비로소 보았다. (…)

“자아, 이거 갖다가 주소 성명 잘 쓰구, 우표딱진 사서 요기다가 똑바루 붙이구, 그래가지구서 우체통에다가 자알 집어넣으세요, 네?”

여드름바가지는 편지를 주는 줄 알고 손을 쳐들다가 오물거린다. (…)

---

44) 채만식, 앞의 책, 403~404쪽.

“자요, 이거 가지구 가세요.”

코앞에다가 바짝 들여대 주니까 채듯 받아 움크려 쥐고 썩하니 달아나버린다.<sup>45)</sup>

식민지시기 백화점은 “결혼시장”이라고 명명되기도 했을 만큼 당시 백화점을 찾는 손님들 중에서는 백화점 점원들을 결혼 상대로 물색하는 이들도 있었다.<sup>46)</sup> 특히 선발 당시 외모가 중요한 조건이었던 백화점 여점원들은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판매를 촉진하는 ‘상품’의 일부로서 존재했다.<sup>47)</sup> 인용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어린 학생에서부터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초월한 다양한 남성들이 백화점 여점원인 계봉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연정을 표현한다. 백화점 여점원이 남성들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비춰지는 것은 백화점 매출 상승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계봉이에게 편지를 건넨 남성은 계봉이를 보기 위해 그녀가 일하는 화장품 코너를 자주 어슬렁거리고 향수를 사는 등 필요 이상으로 백화점에 자주 방문했었다. 여점원의 매력은 백화점의 이미지뿐 아니라 고객유치에도 유용한 하나의 자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봉이는 백화점 여점원들을 향한 고객들의 관심이 그녀를 동등한 인격으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교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희대상으로,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시된 ‘상품’으로 보는 시선의 연장이므로, 여점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당시 조선에서 근대적인 서비스 산업 영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향한

45) 위의 책, 409~410쪽.

46) 『結婚市場을 차저서, 百貨店의 美人市場』, 『삼천리』, 1934.5, 156~159쪽.

47) 백화점 여점원으로 적합한 여성상을 논하면서 “손님에게 서비스 잘하는 것이 백화점의 제일목적인만큼 자연히인물을 보게됩니다.”라며 점원의 외모를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언급하는 화신백화점 인사담당자의 말은 점원의 외모 역시 백화점의 매출상승과 직결되는 중요한 상품적 요소의 하나로서 인식했던 당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박주섭, 『女職場의 理想型 打診』, 『女性職業戰線에 召集令의 鐘은운다』, 일터는 이런 여성을 부른다, 自尊心이 적고 첫인상 좋은미혼녀, 『조선중앙일보』, 1936.2.23.)

사회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다. 특히 남성 지식인들은 다양한 남성들과의 접촉이 자유로운 여성 노동자들이 ‘정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그녀들의 행동을 단속하기에 바빴다.<sup>48)</sup> 당시 사회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시선에 의해 성적으로만 대상화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성적접촉의 원인을 그 여성들의 단정하지 못한 것에서 찾았으며 성폭력 피해 여성도 선정적인 흥밋거리로만 재현하였다.<sup>49)</sup> 계몽은 이러한 사회의 시선을 알기에 그녀를 ‘대상’으로만 보고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관심을 표하는 남성들을 거부하고, ‘대상’이 아닌 스스로 행동하는 “행동파”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계몽이 자신을 정의하는 단어인 “행동파”는 백화점 상품의 일부로, 혹은 연정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전시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계몽이 연애편지를 완곡하게 돌려주는 행위 역시 그 학생의 연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뿐만 아니라 행동파가 되겠다는 그녀의 선언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승재와의 관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부자루 사는 거 몰라두 시방 가난한 사람네가 그닥지 가난하던 았을텐데 분배가 공평털 았아서 그렇다우.”

“분배? 분배가 공평털 았다구?” (…)

사전에서 떨어져 나온 몇 장의 책장처럼 두서도 없고 빈약한 계몽이의 ‘분배론’은 승재를 입맛이나 나게 했지 머리로 들어간 것은 없고 혼란만

48) 당시 근대적 학문의 세례를 가장 많이 받았고 보수적인 시선들과 거리를 두고 진보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자임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서조차도 여성들의 정조를 이유로 여성들에게 정조 수호를 당부한다. (배상미, 『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의 수용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33, 여성문학학회, 2014, 316쪽)

49) 이와 관련된 당시의 기사들은 배상미, 『제국과 식민지의 백화점과 여성노동자-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의 『다루마야 백화점(だるまや百貨店)』과 장덕조의 『저회(低徊)』를 중심으로』, 『비교문학』68, 비교문학학회, 2016, 87쪽.

했다.<sup>50)</sup>

승재는 군산에서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학강사를 해왔고, 서울에서도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청구하는 실비병원에서 일했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이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깊이 고민하지는 않고 다만 그들을 돕는 일에 열중해왔다. 그러나 가난의 원인을 ‘분배’에서 찾는 계봉에게서는, 서술자가 언급했듯이 “두서도 없고 빈약한” 수준이지만, 이미 의사 면허증이 있는 승재보다 가난의 원인을 더 넓고 깊게 사고하는 힘을 가진 계봉의 인식수준을 보여준다. 또한, 계봉은 승재가 그녀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의사이고, 나이도 더 많으며, 남성이라는 더 우월한 젠더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재의 권위에 굴하기는커녕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고, 혹은 인용문에서처럼 때로는 승재의 무지를 지적하기도 한다. 계봉이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사고수준은 군산에서 정 주사의 몰락과정을 지켜 보면서 자란 그녀의 성장배경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비록 정 주사가 지금은 하바꾼으로 미두장에서 일확천금을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고는 하나, 그도 한때는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로서 성실하게 직분을 다했었으며, 계봉의 어머니 유 씨도 항상 열악한 가정경제에 힘이 되기 위해 매일같이 샴바느질을 하며 가정경제를 이끌어나갔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성실한’ 노동자로서 한 몫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끊임없는 가난에 시달렸던 인물들이다. 정주사의 경우, 전근대 교육과 근대 교육을 모두 받은 상당한 엘리트였으나, 식민지배 하에서 조선인들에게 열려있는 얼마 되지 않는 고위직의 기회는 오랜 기간 그를 말단직에 머무르게 했고, 그마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미두시장을 이용한 투기를 하며 일확천금의 꿈에 빠져들게 된다.

1910년대에 설립된 조선의 미두 취인소는 선물거래와 청산거래 방식으

50) 채만식, 앞의 책, 419~420쪽.

로 이루어지는 일본의 취인소 방식을 도입하였고, 이 방식을 이용하여 쌀 거래에 관심을 두는 대신 차액에 집중하는 이들이 소위 말하는 ‘미두꾼’이었다.<sup>51)</sup> 처음에는 총독부가 이 거래소를 독점하는 듯 했으나 이내 이러한 방식으로 곡물을 거래하는 유사한 기관들이 여럿 생겨, 실제 곡물거래보다 투기에 집중하였다. 정 주사가 가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계몽의 가족은 일본 식민 질서가 곡물거래지역에 조장한 곡물투기흐름과 맞물려 지속적인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러한 맥락 안에서 계몽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구조가 조장하는 빈부격차와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인들은 학력이 높아도 취직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모순에 의해 중층결정된 상황에 의해 구직활동 및 생계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음은 물론이다. 군산에서 느낀 사회적 모순을 바탕으로, 계몽이는 서울에서 “행동파”로서 기존의 여성상과 조선인 상과는 다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고민한다.

#### 4. 식민지 근대 도시의 시공간을 전유하며 여는 새로운 가능성

식민지 도시로서 서울은 여타 다른 유럽의 식민지들과는 달리 역사적 전통이 깊은 도시였으며, 초기 총독부의 정책에 따라 경제중심지로서의 기능보다는 정치·행정기능이 우선적으로 발달했다. 서울은 1930년대 후반 군수산업의 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업화의 길을 밟는데, 그 이전의 서울의 도시화와 근대화 양상은 서비스 산업에 근거하여 과잉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sup>52)</sup> 유흥산업과 서비스 산업은 대인(對人)영업이 성장과정에서 주요한 요인이었으므로, 더 많은 손님을 끌기위해 다양한

51) 이형진, 『일제하 투기와 수탈의 현장- 미두·증권시장』, 『역사비평』18, 역사비평사, 1992, 97~103쪽.

52) 김백영,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92~93, 190~209쪽.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자체가 산업을 확장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 당시 다양한 매체들은 서울 도심 거리에 여성들이 갑자기 늘어난 현상들에 주목하며 그녀들을 성적 대상화하며 부자연스러운 존재로 취급하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역으로 그만큼 도시가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에서 여성들은 더 이상 비가시화된 존재가 아니라 중요한 도시 구성원의 일환으로 자리잡아간다.

새로운 사회의 행위자로서 등장한 ‘여성’은 소설 안에서 당시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였다.<sup>53)</sup> 게다가 앞서 살펴본 대로 사회에서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차별적인 시선들과 구조적인 제약은, 여성이 앞으로 사회 안에서 자리잡아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투쟁하는 주체가 되어야만 하는 현실적 조건을 만든다. 이러한 여성의 성격은 채만식이 근대 사회의 하나의 행위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놓여있는 ‘여성’을 기존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미래를 전망하는 주체로서 포착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채만식의 여성인물들은 근대 이후 도시에서 여성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기회’들을 활용하고 식민지 근대 도시들의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공간들을 그녀들 나름대로 전유하여 남성들로부터 독자적인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서 노라의 일터이자 현석준이 동양은행 대리인으로서 관리하는 인쇄공장이 위치한 곳은 관철동이다. 관철동은 조선시대에 시장이 있었던 지역으로, 특히 상업이 활발했던 조선 후기에는 서울의 그 어느 지역보다 유동인구도 많았으며 많은 재화가 유통되었다. 그 이전에는 여성들이 주로 집 안에 거주하거나 농업활동에만 참여했을 뿐,

53) 1930년대 당시 이러한 경향은 채만식의 소설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는데, 김남천 역시 소설 속의 여성인물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진 행위자로서 소설 안에서 그려낸 바 있다. (배상미, 『김남천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여성인물과 “생활”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51~57쪽)

시장에 출입하여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장이 서는 날은 예외적으로 여성들이 바깥출입을 하며 물품을 구매하거나 직접 물건을 판매하기도 했다.<sup>54)</sup> 조선후기는 한편으로 그 어떤 시기보다 보수적인 유교 이데올로기를 활용해 여성들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했었지만,<sup>55)</sup>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발달이라는 물질적 조건의 변화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경제력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등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변화가 일어났었다. 관철동이 표상하던 조선후기 여성들의 모순적인 지위는, 인쇄공장에서 노라를 비롯한 여성 노동자들의 모순적인 지위와도 맞물린다. 여성들은 임노동 시장에 진출하여 사회 곳곳에 그녀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었지만, 동시에 거리의 여성들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시선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조선후기가 그랬던 것처럼, 물질적 조건의 변화는 여성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노동자 또는 학생으로서 각자의 자리를 확보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물질적 변화의 속도와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었다. 노라가 공장에서 현석준에게 “내가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 한 사람의 노예질을 싫다고 벗어나서 나왔다가…… 인제 다시 또 당신한테 매인 몸이 되었소”<sup>56)</sup>라는 진술은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현석준과 노라의 남편-아내 관계가 관리자-노동자 관계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남성’에게 지배받는 가부장적인 사회질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녀가 일하는 인쇄소에서조차,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인 노라는 주목

54) 김대길, 『조선 후기 장시 발달과 사회·문화 생활 변화』, 『정신문화연구』35(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96~97쪽.

55) 17세기에 들어서면, 입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여파로 인해 사대부의 지도력이 약화되고, 이와 더불어 씨족중심과 부계중심으로 향촌사회가 재편되면서 문중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가부장제의 가족질서가 강화되었다. 가문의 명성을 드높이는 방법으로 남성들에게는 입신출세라는 과제가 부여되었던 것과는 달리, 여성들에게는 ‘몸가짐’이 가문의 도덕적 우월성을 드러내고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방법으로 채택된다. (김언순, 『조선후기 사대부 女訓書에 나타난 여성상 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28(1), 한국교육사학회, 2006, 27~32쪽 참고)

56) 채만식, 『인형의 집을 나와서』, 『채만식전집』2, 창작사, 1987, 297쪽.

의 대상이 되고, 성별에 따라 노동공간과 직무를 구분하는 등 성별관계는 노동현장의 곳곳에 침투해 있다. 현석준과의 재회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밖의 사회 질서도 남녀에게 다른 사회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로 우리 싸워봅시다”<sup>57)</sup>라는 노래의 진술은 단순히 현석준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모두를 통제하고 있는 성별권력을 활용한 차별구조를 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탁류』의 시공간은 계봉이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질서에 내포되어있는 성별권력관계를 인식하고 그것에 포섭되지 않는 삶의 방식을 모색하도록 이끈다. 계봉이와 계봉이는 서울에서 함께 거주하고, 또 계봉이가 일하는 공간은 모두 지금의 종로1가와 종로2가에 걸쳐있는 지역이다. 이 공간은 조선인들의 활동공간인 북촌에서 제일 변화한 공간이자, 신식 상점들과 유흥시설이 즐비한 공간이었다. 총독부의 대경성도시화계획 이후, 서울에 대도시로서의 인프라가 점차 갖춰지면서 1930년 미츠코시 오복점이 백화점으로 그 규모를 확장한 것을 필두로, 다양한 일본 유통 자본들이 백화점을 건립하기 시작했고, 이것의 결과는 조선인 소상공인들의 생존 위협으로 나타났다.<sup>58)</sup> 특히 종로1가와 종로2가는 일본 자본들이 주로 진출한 남촌과 달리 조선인들이 주로 사업을 벌이고 다양한 활동을 하던 공간이었다. 일본의 대자본에 의해 조선의 소자본들이 몰락해가던 그 치열한 시공간에 계봉의 갈등과 저항 역시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봉이 거주하는 초봉의 집은 종로 동관 파주개, 즉 지금의 종로 2가 부근이고, 계봉이 일하는 곳은 종로 네거리에 위치해있다는 백화점, 즉 화신백화점이다. 일본 자본이 건설한 백화점이 몰려있는 본정과 약간의

57) 위의 책.

58) 1930년대에 이르면 당시 조선의 많은 신문들에서 일본 백화점에 의해 그 생존을 위협받는 조선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관련 자료는 배상미, 『제국과 식민지의 백화점과 여성노동자-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의 『다루마야 백화점(だるまや百貨店)』과 장덕조의 『저회(低徊)』를 중심으로, 『비교문학』68, 비교문학학회, 2016, 91쪽.



거리를 둔 북촌지역에 위치한 그녀의 거주지와 일터는, 청계천을 건너면 바로 닿을 수 있는 남촌 지역의 최신 문화와 유행을 모방하여 보다 ‘근대적’이고 ‘문명화된’ 표상을 획득하려는 조선인들의 욕망이 존재하는 곳이다. 당시 화신백화점이 일본 백화점들을 상당부분 모방했고, 조선인이 세운 백화점보다 일본 백화점들이 더 성행했다는 기사는<sup>59)</sup> 일본 자본이 선취했던 선진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sup>60)</sup> ‘일본’의 것이 우월하고 더 진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한편, 소외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전락하는 조선인 소상인들이 공존하는 서울, 그리고 종로라는 공간 안에서 계몽은 일본 자본주의와 소비문화가 젠더를 활용하는 방식, 조선의 정조 이데올로기가 만나 빚어내는 여성억압, 일본 자본들에게 몰리는 돈의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sup>61)</sup> 초봉은 사회가 그녀에게 기대하는 여점원, 여성, 시누이, 애인 상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나가면서 남성중심적이고 식민화된 서울이라는 공간을 그녀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공간으로 전유한다.

노라와 계몽 모두 남성지배적인 성별권력관계에 의해 구조화되어있는 시공간에 위치해있으나, 동시에 이 사회구조가 역동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공간에 위치해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조선을 ‘근대화’한다는 목적으로 일본의 조선 병합을 정당화했지만 실상 조선, 특히 일본이 제2의

59) 신태익, 『和信德元 對 三越丁子 大百貨店戰』, 『삼천리』, 1931.2, 52~53, 74쪽.

60) 앞서 분석했던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서 노라가 일하던 카페가 위치한 공간은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인 북촌에 위치한 관철동이었는데, 카페 여급들이 일본식 별칭을 사용하고 조선인 손님들도 일본어를 쓰는 등 당시 근대적 유흥문화는 일본식이 최신택이고 세련되었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시기에 조선인들만 모여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문화를 흉내 낸 공간이라면 일본어를 사용한 맥락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61)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은 화신백화점을 건립하던 초기, 일본백화점보다 시설 면에서나 상품 종류 측면에서 뒤쳐지던 화신백화점의 열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그의 백화점이 ‘민족자본’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전략은 초기 화신백화점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염복규, 『민족과 욕망의 랜드마크』,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6, 도시사학회, 2011, 59~66쪽)

수도로 건설할 계획까지 있었던 서울의 근대화는 생산시설구축이 아니라 소비산업의 융성에 의해 이루어진 소비·문화적 근대화 측면이 더 강했다. 모순적인 명분에 근거하여 왕성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의 한복판에 존재하는 여러 균열들은 강고해 보이는 당대 사회질서들의 허약한 기반들을 경험하게 해주었고, 이것은 그녀들의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지가 된다. 채만식의 소설들에 보이는, 시공간적 영역에서 기존 사회질서 경험을 전유하려는 그녀들의 노력은, 피식민자이자 남성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여성, 그리고 노동자라는 여러 역할들이 중층결정된 육체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회상을 보여준다.

## 5. 결론

이 연구는 채만식 소설 『탁류』와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 나타난 여성노동자와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 안에서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위치의 재현이 함의하는 바를 논하였다.

『인형의 집을 나와서』는 군산 부근과 서울의 여러 지역을 이동하는 노라의 시공간 여정을 따라가면서 총독부의 정책변화가 식민지 조선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여성에게 개방된 노동시장, 그리고 사회에서의 여성과 노동자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노라의 인식변화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중층결정된 상황을 재현하였다. 『탁류』는 철도가 놓인 지역을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초봉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식민지 조선이라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가부장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군산과 서울에서 초봉이 겪은 모순들을 지켜보며 여성에게 강요된 정조와 결혼 이후에는 사회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남성지배적인 사회질서라는 점을 자각해나가는 계봉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과 노동의 문제가 중층결정되어있는 상황을 포착한다.

두 소설의 여성인물들이 식민지 사회의 모순을 젠더적 시각에서 바라

보고, 이러한 현실에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전유해나가는 과정은 당시 식민지 조선이라는 시공간이 가지는 성격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두 소설 모두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사회적 변화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여성인물들의 시간에 따른 공간이동은 이런 사회적 배경들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같은 시공간에 있는 행위자들이 단일한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역할들이 중층결정되어 있으며 이 행위자들이 억압적 상황을 전유할 능력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채만식 소설의 여성인물들은 식민지 조선의 성격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과, 사회변혁의 행위자로서 여성이 보여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채만식, 『蔡萬植全集』1~10, 창작사, 1987.

『삼천리』, 『조선중앙일보』

### 2. 단행본

アウグスト・베ール, 加藤一夫 譯, 『世界大思想全集 33: 婦人論』, 春秋社, 1927, 10~11쪽.

David Harvey, *The urbanization of capital*, Blackwell, 1985, p.14.

Etienne Balibar&Immanuel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Verso, 1991, pp.153~184.

### 3. 논문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구성과 공간인식」,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26, 2006, 1~48쪽.

김상덕, 女子醫學講習所, 『醫史學』2(1), 대한의사학학회, 1993, 80~84쪽.

- 김성은, 로제타 홀의 조선여의사 양성, 『한국기독교와 역사』2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5~43쪽.
- 김승, 일제강점기 해항도시 부산의 온천개발과 지역사회의 동향, 『지방사와 지방문화』14(1), 역사문화학회, 2011, 203~261쪽.
- 김백영,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300쪽.
- 김연순, 「조선후기 사대부 女訓書에 나타난 여성상 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28(1), 한국교육사학회, 2006, 27~61쪽.
- 김대길, 조선 후기 장시 발달과 사회·문화 생활 변화, 『정신문화연구』35(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87~113쪽.
- 배상미, 제국과 식민지의 백화점과 여성노동자-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의 다루마야 백화점(だるまや百貨店) 과 장덕조의 저회(低徊) 를 중심으로, 『비교문학』68, 비교문학학회, 2016, 71~99쪽.
- 배상미, 「1930년대 여성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계급투쟁」, 『민족문화사연구』58, 민족문화사연구소, 2015, 283~312쪽.
- 배상미, 「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의 수용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33, 여성문학학회, 2014, 299~330쪽.
- 서지영, 산책, 응시, 젠더: 1920~30년대 ‘여성 산책자’(flânerie)의 존재 방식, 『한국근대문학연구』21, 한국근대문학회, 2010, 219~259쪽.
- 염복규, 민족과 욕망의 랜드마크,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6, 도시사학회, 2011, 43~71쪽.
- 염복규, 식민지권력의 도시 개발과 전통적 상징공산의 훼손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 및 의미-‘경성시구개수 제6호선’의 사례분석, 『동방학지』15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301-337쪽.
- 이성호, 식민지 근대도시의 형성과 공간 분화- 군산시의 사례, 『쌀·삶·문명연구』1, 쌀삶문명연구소, 2008, 182~301쪽.
- 이정욱,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과 전통 사회의 변화- 유곽형성과 군산지역 유곽문화의 정착, 『일본연구』24, 고려대학교 일본학연

- 구센터, 2015, 367~392쪽.
- 전희진, 「식민지시기 문학의 장에서의 여성 작가들」, 『사회와 역사』93, 한국 사회사학회, 2012, 5~47쪽.
- 전희진, 「식민지 초기 신여성의 공적영역으로서의 초대와 그 실재」, 『사회와 역사』88, 한국사회사학회, 2010, 229~265쪽.
- 조희진, 「식민지 시기 생활개선 논의와 의생활강습회의 역할: 총독부 정책 시행과 기술 및 지식 보급 가능성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34, 국립민속박물관, 2014, 29~60쪽.
- 주익중, 「식민지기(植民地期) 조선에서의 고무공업의 전개」, 『경제사학』 22(1), 경제사학회, 1997, 83~120쪽.
- 황의룡·손환, 「일제 강점기의 라디오제조 보급과 사회적 영향」, 『체육사학 회지』14(3), 한국체육사학회, 2009, 37~48쪽.

#### 4. 기타

- 김정봉, 「긴박했던 북촌의 46시간... 역사책 한 권 쓰겠네: 북촌기행② 북촌 계동길(상)-역사의 보물단지, 현대사옥 언저리」, 2014.11.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2101&CMPT\\_CD=SEARCH](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2101&CMPT_CD=SEARCH))
- 김정봉, 「칠순 넘긴 북촌 최소아과, 절대 문 단지 말아요: 북촌기행③ 북촌 계동길(하)-역사의 보물단지 중앙학교 언저리」, 2014.11.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4401&CMPT\\_CD=SEARCH](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4401&CMPT_CD=SEARCH))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_id=CP\\_THE004&cp\\_code=cp1006&index\\_id=cp10060016&content\\_id=cp100600160001&search\\_left\\_menu=3](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_id=CP_THE004&cp_code=cp1006&index_id=cp10060016&content_id=cp100600160001&search_left_menu=3)

## Abstract

Representing Spatio-temporality in Colonial Korea by Women  
Perspectives: *Polluted River and Going out A Doll's House* by  
Ch'ea, Mansik

Bae, Sang-Mi

The research examines how female laborers' social status is represented related to the economical and political condition in colonial Korean novels, through *Polluted River and Going out A Doll's House* by Ch'ea, Mansik. The status of women protagonists in the novels reveals the necessity to consider that the women agents are overdetermined by many roles not determined single one. Although the women's condition are determined by many unfavorable situations such as woman, non-married, and working class, they are represented as agents who have the possibility to build new society. It reflects that the situation of colonial Korea needs to call women who newly appear in the society after modernization in dynamic flow of social changes.

Key words : Spatio-temporality, Overdetermined, Gender, Woman Agent, Modernization

■ 본 논문은 2016년 3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4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